

MUJINE

Heritage



05
MAY 2013

Ruffle me

ULTIMATE WHITE

Be colorful

내겐 너무 완벽한 선 케어
그래서 당신, 유선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

art

친밀하고 동시에 낯선 '회화'

'Intimate Distance', 친밀함과 낯섦. 미술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장르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오늘의 회화'를 보는 시선을 제목으로 삼았다. 원시적이고 구식의 손기술로 여겨지는 회화가, 지금 서구 현대 미술계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아는가? 5월 26일까지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에서 열리는 <Intimate Distance> 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화두다. 독일 미술계의 거장 한스 피터 펠트만과 미국의 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 중 유일한 생존 작가인 조지 콘도 등 현재 유럽에서 인기 있는 회화 작가들 6명의 작품 26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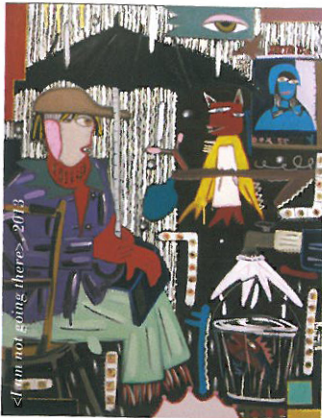
Chantal Joffe, <Isabella>



Bernd Ribbeck, <Untitled>



Cristoforo, <Untitled>



갤러리 101에서 발표하는 신작 전시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즐거운 놀이를 탐닉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그림들은 '원초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이끈다. 소위 '잘 그린' 그림과는 사뭇 다른데, 애초에 대상의 재현이 그의 목표가 아니다. 최월가의 그림은 벡타인과 스타킹을 벗어버리고, 의식 밑바닥에 숨어 있는 원초적인 놀이의 감각을 행하라, 외친다.

돌아온 화단의 이단아, 최월가의 신작들

청년 작가의 재기 발랄한 작품처럼 보이나, 그림의 주인공은 1963년생 최월가다. 1990년대 초, 프랑스 에콜 데보자를 졸업한 후, 30년간 파리와 도쿄, 서울을 오가며 작업 활동을 해온 그는 방랑기도 그려거나와 액자 부분까지 그림을 연결하는 입체화를 시도하는 등 매번 색다른 시도를 펼쳐 화단의 이단아라 불린다. 이태원

도시의 기록, 개인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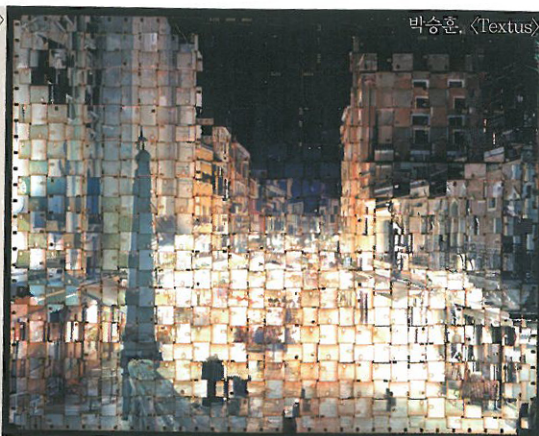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도시엔, 우리가 모르는 아만과 상처가 얼마나 숨어 있을까. 스틸링 루비는 얼룩진 벽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스타덤에 오른 작가다. LA 갠딘이 영역표시 격으로 밤새 그려놓은 그래피티와 시 청소부들이 이를 지우고 남은 흔적들이 도시의 병리적 현상이라 생각한 것. 스프레이를 겹쳐 뿌리며 흘러내리고 쌓인 대규모 회화 작품들과 도자기와 브론즈 조각,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월 10일까지 국제갤러리.



Sterling Ruby, <RUBY>



주도양, <Rake 06-Polar>



박승훈, <Textus>

금산 갤러리에서 만나는 '사진의 방'

금산 갤러리에서 근사한 사진 전시를 기획했다. '스트레이트 사진'과 '메이킹 사진'으로 이야기되던 사진 담론을 회화, 조각, 설치, 영상으로 확장해나가는, 사진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다. 주도양, 박승훈, 유현미, 하태범, 박제성 등이 참여 작가의 전면. 5월 29일까지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그룹전과 개인전이라는 전시 형태를 하나의 장으로 모으는 색다른 시도를 기대할 만하다.